

7기 자주여성 민주남성 대동학교 기획안

발산 : 12대 자주 총여학생회

수신 : 별처럼 빛나는 총여 중앙운영위

1. 7기의 대동학교 평가

(기존 진행되었던 대동학교는 목표와 판에서 별반 차이가 없었기에 작년을 중심으로 평가함)

- 목표와 의의에 입각하여

- ▶ 여학생회에 대한 인식을 가져오는 계기였다.
- ▶ 작은 목표 설정에 비해 세상속으로의 통해 전반적인 사회를 고민하며 비약적인 성과를 가져왔다.

- 구체적인 기획판에서

- ▶ 세상속으로의 거처단사 실천할 수 있어 인식하는 데 좋았다.
- ▶ 마지막 시내에서의 실천 투쟁은 올해도 꼭 받아안았으면 좋겠다.
- ▶ 단어간부들이 우왕좌왕하는 증상에 의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 예정된 시간을 어기는 경우도 많았다.
- ▶ 사소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
- ▶ 과단위 연계체계를 만들어야겠다. (즉 자방단으로 가져가는 것이...)
- ▶ 무엇보다 단대에서 단위 실정에 맞게 잘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 ▶ 중앙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중앙 실무를 단위에서 함께 잘 하자.
- ▶ 이번에도 후속작업이 잘 안 되었다.

2. 97년 7기 대동학교 위상과 역할 그리고 목표는?

- 위상과 의의

1. 4-9를 모아간 세대기들을 타사 총화하는 장이 되어야겠다. 올바른 삶에 대한 고민과 삶의 가치관에 대한 고민을 총화해주어야겠다.
2. 어느때보다 의식수준이 높은 세대기들, 4-9를 지나며 의식수준이 많이 높아간 세대기들에게 고민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장이 되어야겠다.
3. 의식수준이 높은 세대기들이지만, 여성문제에 대한 고민의 수준은 아직 미미하다. 세대기들에게 지금까지의 대동학교처럼 여성문제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을 남기기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여성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을 던져주고, 실천하게 해야겠다.
4. 단순한 여성문제에 대한 내용만을 풀지 않도록 하여 자주적 여학생회의 사상이 여성자주화 사상이라는 것을 세대기뿐만 아니라 학생회까지도 함의하도록 하는 장이어야겠다.
5. 4-9를 지난 뒤의 시기이지만, 전단위의 결합력을 높여 북한 전체가 집중하여 어울림의 장으로 만들어야겠다.

- 목표

1. 여학생간부들을 4-9계 까지와 투쟁을 거처하며 활동가로, 대중간부로 굳건히 세워내자.
2. 여성자주화사상이 자신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일치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자주적 여학생회에 대한 상을 함의한다.
3. 여성문제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만이 아니라, 여성문제를 깊게 고민하게 하여 대동학교 이후의 단위에서 여연, 탁아 후원회, 정신대 후원회 등을 건설하고, 기존의 여연, 탁아소모임을

안착화 시켜낸다.

- 4. 우리 태오내에서 여학생화와 여학생운동을 합의한다. (교사교양에서 학생회간부들까지 참가하도록 하여)
- 5. 중앙과 단위, 과가 같은 감으로 사업을 가져가 체계를 확립시킨다.

3.7기 작주여성 민주남성 대동학교 개

평등 세날, 역사의 주인으로 달려가는 우리들

97년의 정세와 여성자주화 사상이라는 것을 포함하는 기조로,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어야 함을, 또한 인간해방이 되는 세상의 주인으로 서자는 내용.

4. 대동학교 세부일정

첫째날 (4월 14일)

- 4:00 ~ 4:30 길 늘 이 (북현 곳곳)
- 4:30 ~ 5:00 입 학 식 (민주광장)
- 5:00 ~ 5:30 문화공연 (대강당)
- 5:30 ~ 7:00 강 연 (대강당)
- 7:00 ~ 8:30 분임토론 (조별로)
- 8:30 ~ 9:00 단태별 교사모임
- 9:00 ~ 단대주체모임

♪길늘이 : 민족북현 곳곳을 돌아다니며 대동학교에 참가할 사람들을 모아서 민주광장으로 집결한다.(풍물패에 제안-대동학교 깃발, 대동학교에 참가하라는 폴라)

♪입학식 : 교가를 배우고, 교장선생님 인사, 내반인사를 한 후, 교사결의를 밝히고, 새내기선서를 한다. 교가는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

식전행사 : 사회자 - ?

내용 - 여수선한 분위가 정리와 함께 교가 부르기

입학식 : 사회자 - ?

식순 - 입학식 선언

교장선생님 인사(총여학생회 회장님)

내반인사(학생부처장님, 총학생회회장님,

이영자선생님, 대경여대협회장님, 대경총련의장님-96년 안
대구여성회, 여성의 전화, 총학회장, 학자추, 조통위,
역대교장선생님 - 97년안)

일정소개

교사결의 - ?

새내기 선서 - ?

교사 - 풍물패에 같이 제안

교가 부르기

♪문화공연 : 30분정도로 여성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집체극을 준비(문예패에 제안)

♪강연 : 여성문제에 대해 기초적인 내용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점을 가질 수 있게 준비
이후 30분 정도 질문시간

(총여 정책아 준비, 아직 설의중)

♪분임토론 : 대동학교에 참가한 조마다 문화공연과 강연에 대한 토론을 가진다.(물론, 교사가 주

체가 되어야 겠죠?)

♪ 단대별 교사모임 : 둘째날 있을 '세상속으로'에 대해 교사들이 일정동안 새내기들에게 어디에 참가할 것인지 의견을 수렴한 후 단대주체가 총화하는 자리.

♪ 단대주체모임 : 첫째날을 평가하고 '세상속으로'의 일정에 대해 참가하는 곳을 총화한 후, 조정해서 배정한다.

둘째날 (4월 15일)

3:00 ~ 4:00 단대시간 (단대별)

4:00 ~ 6:00 '세상속으로' (복합골 곳곳)

6:00 ~ 7:00 '세상속으로' 정리, 발표(민주광장)

7:00 ~ 8:30 분임토론(조별로)

8:30 ~ 단대주체모임

♪ 단대시간 : 배정되어 있는 '세상속으로'의 내용으로 조마다 약간의 교양을 가진다.

♪ 세상속으로 : 대동학교의 하이라이트 이후 별첨.

♪ 정리, 발표 : 민주광장에서 교가를 부르고, 교장선생님 인사가 있는 후, 각 내용마다 새내기들이 정리해서 발표하는 순서를 가진다.

♪ 분임토론 : '세상속으로'를 조마다 토론해서 정리한다.

♪ 단대주체모임 : 둘째날 일정에 대해 평가하고, 셋째날 일정에 대해 공유한다.

셋째날 (4월 16일)

4:00 ~ 6:00 단대시간(단대별)

6:00 ~ 6:30 졸업식(민주광장)

6:30 ~ 대동놀이(민주광장)

♪ 단대시간 : 단대별로 창발적으로 고민한 내용을 푸는 자리.

단어가 없는 단대와 있는 단대가 함께 한다.

♪ 졸업식 : 대동학교를 정리하는 자리. 출범식을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
사회자 - ? (아주 재미있는 사회자로)

식순 - 교장선생님 인사 (역대교장선생님 인사 - 96년안)

단대시간 총화

새내기, 재학생, 교사들의 정리의 말

교장선생님 정리

♪ 대동놀이 : 사회자 - ?

순서 - 몸짓과 노래로 분위기를 띄운다.

OX퀴즈 => 상품

품물, 촛불잔치

단대별로 술

세 상 속 으 로

발신 : 12대 자주 총여학생회
수신 : 빛나는 중앙운위

1. 들어가며

대동학교를 힘들게 고민하고 계시는 여러분! 세상속으로 기획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논의했어야 함에도 먼저 총여집행부에서 논의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가지 주제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또한 많겠지만, 또한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할 점이 아니겠습니까?

새내기들에게 하고픈 얘기 또한 많고, 인원또한 많고, 시기가 늦고 어려움이 많은 대동학교이지만, 함 잘해봅시다. 투쟁!

2. '세상속으로'의 의의와 목표

의의

- 우리가 풀어내고자 하는 여러 내용들을 실천하면서 체화시켜내고, 여성문제 또한 풀어내면서 여성자주화 사상을 새내기들이 몸으로 체화하도록 한다.

목표

-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철저한 준비속에서 새내기들에게 2시간의 시간이지만 많은 감동으로 온 몸에 각인시켜 내어야겠다.
- 한번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동학교가 끝난 이후의 실천적인 과제를 내어오도록 해야겠다. (이후 후속작업또한 고민이 잘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세상속으로'의 구체적 내용

96년의 평가에 비추어 강연만 하는 주제는 없애고, 모든 주제마다 강연과 실천을 함께 하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주 제	강 연	실 천 투 쟁
장산대 투쟁에 대하여	이용수 할머니와 정대협(들중 하나가 되지 싶어요.)	학내 정신대 기금 모으기(후원회선전?)
주한미군 철수 투쟁	미군기지 땅 되찾기 식민모임	중도선전거리에 자보
4-9 통일 열사	조국통일위원회 정작	추모비 주위 단장, 꽃심기
탁 아	▶다담 ▶감정자 완장남	▶디딤방문 ▶?
성 폭 력	여성의 전화	북현 주위의 물갈이 투쟁
성 교 육	여성의 전화	성의식 설문조사
과학생회에서부터 한총련까지	대경총련 임시의장님	각 단대 학생회 방문
조 국 통 일	조국통일 위원회 위원장님	중도선전거리에 입체선전물을 만들고, 북한에 편지쓰고붙이기
김영삼의 4년간의 실정에 대해	?	중도선전거리에 각자의 내용으로 자보(격문)쓰기
여 학 생 회 란?	총여학생회 회장님	각 단대 여학생회 방문
학 생 자 치 권 탄 압	인문대 회장님(?)	토론해서 중도선전거리에 자보

4. 현재 고민의 지점

96년처럼 시내에 나가볼수도 있지 않을까? 새내기들에게 더 큰 경험을 줄 수 있지 않을까?

96년처럼 여러가지 내용을 어떻게 분공할 것인가?

96년처럼 투쟁의 내용들을 더 실천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

대등학교까지의 계획 - 반드시 관철

종류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대입관리사역 대등학교 시	23	24	25	26	27 1차교사모임	28 포터, T 만들기	29
		← 한 총련 백만 학 도 총투톤 →			← 한총련 백만학도 총합리 →		
대등학교 2차 시	30 대등학교 2차 시	31	1	2	3 2차 교사모임	4	5
		← 인 무 대			모 꼬리 →		← 한 총 련 대의 원
대등학교 2차 시	6	7	8	9	10 3차 교사모임	11	12 4차 교사모임
2차 담당리	계 리 →	← 3일	낮 밤 투 쟁 →	자른집 유교가감		자른집, 유인물 완성	자른집, 유인물 만들기
3	13	14 여침 선전전때 유인물 들리기	15	16	17	18	19
		← * 7기			← 대 등 학 교 →		

구국농대여학생회 총노선 1차 토론서

96년 평가

1300와성 여학우의 삶 곳곳에서 그들을 인간화,
새역사의 새주인으로 세워내는 농대여학생회

기본과제

1)과여학생회의 건설,강화로 실질적인 여학우의 의견 수렴기구가 된다.

-단여운위의 강화

-과여학생회 건설(과여학생회 발전 소위원회)

2)일상사업의 강화와 대중화

-여학생 휴게실 개방

-정기적인 행사(취업간담회,성교육 실시)

-농대 특성에 맞는 사업(농활:아동반,여농반주체마련,활성화)

-농대 여학우들의 편리한 생활(화장실 자판기 관리,과방에서 금연 전면실시)

3)연대사업의 강화

-정신대문제 해결(수요집회 가기,후원금 모금)

-탁아 소모임

= = 평 가 = =

1)총노선평가

총노선은 그 해 여학우들의 올바른 이해와 그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는 것이다.96년의 총노선은, 매우 바른 모습을 지닌다.그러나 집행능력의 부족으로 올바른 실행이 되지 못했다.평가를 한다는 것은 작년을 돌아보고 성과점은 받아들이고 비판받아야 할 것들은 비판하면서 올해의 올바른 모습을 잡아가는 것일 것이다.작년 한해동안 2농대 여학생회는 많은 오류들을 남겼다.총노선을 수립은 그것의 실천을 담보로하나 실제로 행동하지 못했다.여학생휴게실을 작년 2학기때 개방을 하였으나 여휴에 남학우들이 드나들고할 정도로 학우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여휴 개방은 문을 개방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여휴의 필요성을 학우들에게 알려내고 여휴의 활용도를 높여내는 것까지 의미할 것이다.앞으로 여휴관리에 있어이점을 유념해야겠다.여름 농활을 수행하며 아동반,여농반 주체를 세웠으나 조직적이지 못한 모습또한 존재하였다.실제 여농반 주체를 세웠으나 회장님이 모든일을 하는 불상사를 낳았다.그러나 사람이 없어 힘든 가운데에서도 사람을 만들어낸 하겠다는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12대 농대여학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의지 하나로 사람을 만들고 즐겁게 생활해나가야겠다.

2)사상운동평가

여기서 사상이라함은 여성자주화사상을 의미하며 여성자주화사상이라함은 말그대로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삶에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작년한해동안 우리 과연 얼마나 여성자주화사상을 생각했고 들어보았던가를 생각해 보면 말없이 우리의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여학생회 고유의 사업들속에서 과연 얼마나 우리의 사상을 이야기하고 합의해 내고자 했던가 생각해 보아야겠다.

3)조직운동평가

96년 한해동안 처음엔 6명으로 시작했던 여학생회가 1학기동안 회장의 1명의 간부만이 함께 활동을 했었고 같이 하지 못함으로 2학기동안 4명의 96학번 조공은조직화 되지 못한 일꾼들과 함께

여학생회는 도약을 시도했으나 조금은 역부족이었다.

4)대중운동평가

예비대학,대동학교,농활,가을걷이 한마당등 여러사업들 속에서 여학생회내용을 만들어가고 사람들을 모아 왔던가 반성해보아야겠다.

= = 마무리 하며 = =

작년을 돌아보며 많은 반성점들을 남기며 올 한해 농대여학생회의 새로운 도약을 외치며 이제 더 이상 여학생회가 왜 필요한지모르겠다는 말들이 들리지않게 활동해야겠다.

총노선을 준비하면서 작년의 총노선에서 그리 발전한 것은 없을 것이다.아직우리사회,학교가 여성해방에 대한 발전이없어서이기도하고 작년 여학생회의 반성점이기도하다.

올농대여학생회에서는 지속적인 일상사업과 선전을 통해 학우들에게 여학생회를 알려내고 스스로 여학생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와성골 만들고자 한다.

97년 농대여학생회 총노선 들어가며

**경쟁,갈등이 아닌 함께하는 여학우의 삶,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여학우들의 삶이
자주적 여학생회를 만들어 갑니다.**

97년 농대 여학생회가 풀어야 할 과제

1)과여학생회건설준비위원회 건설

- 학우들에게 여학생회의 필요성을 알려내고 올바른 여학우들의 의견 수렴기구로 만들어 낸다.

▲과학생회 학칙개정

-일반적으로 모든 과 학칙에 과대표,부대표는 개재되어 있으나 여대표는 없고 보통 있는 과도 여대표가 부대표의 위상밖에 가지지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여대표의 본래적의미를 되짚어보고 학칙에 명시할수있도록 학칙개정운동을 제시한다.1학기동안 학우들 과 이야기하고 여짱들과 만나면서 2학기 개강총회대상정한다.

▲과여학생회 회칙만들기

과에 학생회 회칙이 있다.여학생회도 회칙이 있어야 한다.현재 있는 과도 있고 없는 과도 있다.여학생회 회칙을 만드는 것은 여학생회 건설을 바라 보면서 제도적 토대마련을 위한 것으로 매우 주요한 사업이 될 것이다.

▲ 농대여학생회의 탁아소모임 건설(탁아활동활성화)

응자부에 있었던 디딤사랑,천섬과에 있는 디딤 후원을 강화하고 농대소모임으로 묶어 2학기 중으로 건설될 과여학생회 건준위에속한다. 내년 과소모임 건설의 주체로 만들어간다.

▲각 과여성문제연구소모임건설을 준비한다.

올해 여학생회강화사업의 최대의 목표로 여성문제를 통한 과여학우들의 관심을 모아 단결력을 과시해 나가며 언제나 과 행사에 참석율이 저조함을 극복해 나갔으면 합니다.농대여학생회의 여연을 중심으로 2학기중 건설될 과여학생회 건준위의 사업의 일환으로 과여연 건설을 준비한다.

※과여학생회·건설 준비위원회 체계에대한고민

98년 과여짱을 고민하는 人 2명 , 97년 과여짱 1명 , 98년 탁아,여연짱 1인 그리고 97,98년 농대여